

1면에서 계속 →

또한 자유전공학부는 2학년부 터 선택하는 전공의 이수 체계도 를 새롭게 개편했다. 총 이수 학점 을 축소하거나 교과목 등을 개편 하는 식이다. 배재형(자유전공학) 학부장은 “2학년에 전공을 선택하 는 자유전공학부 학생을 위해 국 제캠 43개 전공 이수 체계를 모두 새롭게 만들었다”며 “전공별로 상 이하나 예를 들어 총 이수학점이 130학점인 학과를 120학점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수학점이 줄었어도 필수 로 들어야 하는 과목은 다 들을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PBL 신규 전공 개설은 진 행 중이다. 배 학부장은 “2학기에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전공탐색Ⅱ, 무전공 학생만 P/N 방식으로 성적 산출

성적 산출 방식은 양 캠 모두 미 래교육Ⅰ, 전공탐색Ⅰ은 절대평 가, 미래교육Ⅱ와 전공탐색Ⅱ는 P/N(패스/논패스)를 채택했다. 다 만 전공탐색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전공탐색Ⅱ는 무전공 학생이 타 학과 전공 기초를 들을 수 있게 보 장하는 수업이다. 자율전공학부 소속 학생은 전공탐색Ⅱ로 수강한 전공 기초 과목에서 P/N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공탐색Ⅱ를 통 하지 않은 타 학과 전공 기초 과목 은 무전공 학생이라도 기존과 동 일하게 상대평가가 이뤄진다. 이 러한 성적 산출 방식에 이 학부장 은 “학생이 다른 계열에 도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며 “각 단과대에 서 반대가 심했지만, 학장님들을 많이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자율

〈미래교육Ⅰ〉 AI 리터러시 토대의 SDGs 교육

〈전공탐색Ⅰ〉 이정희 학부장, 전문 상담 교수 수업

자유

〈미래교육Ⅰ〉 21세기 대표 키워드 기술, 환경, 국경, 정의 교육

〈전공탐색Ⅰ〉 각 전공 대표 교수, 지도 교수 수업

하지만 자유전공학부는 전공탐 색Ⅱ를 통하지 않고 타 전공과목 을 수강해도 무전공 학생의 모든 성적이 P/N로 산출된다. 단, 이공 계열 학과 수업은 제외된다. 이공 계열 수업은 무전공 학생이 선택 해서 수강해도 기존과 같은 상대 평가 방식이다. 배 학부장은 “자유 전공학부에는 이과 계열 학생이 많아 이공계열 학생의 이공계열 과목 선택 쏠림을 막기 위함”이라 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과대는 무전공 학생 만 수강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 했다. 이 학부장은 “이과대는 무전 공 학생의 많은 진입을 고려해 교 과목 코드를 새로 만들었다”며 “약

대의 약과학과 역시 이를 고려 중 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 쏠림 해결 위해 “다전공 의무화 고려 중”

이외에도 자율·자유전공학부 모두 전공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다전공 의무화를 고려 중이다. 이 학부장은 “2026년부터 다전공 의 무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전공학 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배 학 부장은 “각 단과대 입장을 고려해 야 해 다전공 의무화가 쉽지는 않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무전공 입학생으로 발생

할 교원 부족 현상에 이 학부장은 “필요한 데 우선적으로 인력 배정 을 하고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 다”는 총장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 다.

한편, 자율·자유전공학부 모두 내년도 무전공 입학정원을 확대하 기보단 안정적 운영을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이 학부장은 “해당 부분은 학교 측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학교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기조가 있 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배 학부장은 “무전공 도입이 처 음이기에 올해 안착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

무단인쇄물 어떡하나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서울】교내 게시판에 붙은 무허 가 인쇄물이 방학 들어 대폭 증가했 다. 비중이 높았던 인쇄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노천극장 앞, 중앙도서관 앞 게시판 에 다수 발견됐다. 노천극장 앞 게시 판은 총학이 관리하고 있다. 게시판 에 부착하기 위해선 총학 측의 게시 승인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도 장에는 부착 가능 기한이 명시돼 있 다. 그동안 총학은 학생의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해 인쇄물 허가에 있어 명 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서울캠 신하균(사회학 2023) 비 대위장은 “무허가 부착물은 누가 붙였는지도 알 수가 없다”며 “허가 받지 않은 게시물이기에 조만간 철 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앞 게시판은 관리 주 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학술연구 지원팀 김지영 차장은 “명확한 관 리 주체가 없어 당분간은 중앙도서 관 직원들이 게시판을 지켜볼 필요 가 있을 것 같다”며 “관장님과 상의 하고 학교 측과도 대화를 통해 도서 관 앞 게시판 담당자를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INFORMATION

총학생회

조기대선 조기출선

탄핵무효 이재명 구속

Tech Focus

ACES

민주당 해체하라

방중 노천극장과 중앙도서관 앞 게시판에 무단 인쇄물이 대거 붙었다.

(사진=이환희기자)

경희대 초빙강연 및 비전토크 콘서트

— 일시 : 3월 12일 10:00

— 장소 : 청운관 715호

— 무료 입장

— 전원 기념품 및 커피 쿠폰 제공

— 연사 소개: SBS스포츠 캐스터 이재형, 경희대학교 성악과 졸업(89학번), 육군 장교 중위 전역(ROTC 40기)

2018.06. SBS 러시아 월드컵 캐스터, 2014.06. SBS 브라질 월드컵 캐스터,

2010.06 SBS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캐스터

— 문의 : 제108 경희대 학군단 (02) 961-0085~6